

【祝 辞】
【축 사】

金 得麟
김 득린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祝 辞



金 得麟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尊敬するご来賓の皆さま、そして韓・日の社会福祉専門家の皆さま。

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と第2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が共同で「高齢者福祉施設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位置と役割」をテーマに第2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されますこと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見えないところで黙々と献身的な奉仕をなされてきた皆さまに深い尊敬の念とともに感謝の気持を表します。

東西古今を問わず、自分を生んで、育ててくださったお年寄りを敬う敬老の親孝行思想は人間生活の価値の中で一番のものです。

しかし近代化が高度な発展段階に入った19世紀中葉から世界各国は、いわゆる「人口革命」に苦しめられています。日本はすでに世界最高齢国家となって久しく、わが大韓民国も2000年の老人人工が人口全体の7%を越え、「高齢化社会」へ進入し、2019年になれば、14%を越える「高齢社会」に、2026年には20%を越える「超高齢社会」に入るものと予測されています。

しかし出生率は1.17人で世界最低水準を記録し生産人口減少による経済成長の鈍化と老人扶養費の増加が深刻な社会問題として台頭しています。

老人福祉は今や老人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老人問題は我々の近い未来の問題であり、高齢社会対策は国家生存戦略といっても言い過ぎではないでしょう。

このような時に地形学的な条件と社会文学的な伝統が似ている韓日の社会福祉の専門家が一堂に集まり、お互いに頭を付き合わせて老人福祉増進の方法を模索することは、時宜適切で非常に意義深いことと思います。

私は昨年、大韓民国の社会保障基本法に定められている社会保障審議委員会委員として「参与福祉5カ年計画(2004～2008)」を審議しながら、老人問題の深刻性を指摘し、老人福祉部門の優先順位と政府予算を大きく拡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力に主張しました。

大韓民国政府は年初に「高齢化および未来社会委員会」を発足し、2007年に公的老人療養保障制度の導入を準備するなど高齢社会に対応する各種老人保健福祉政策を拡充しています。

国家と社会の発展のため、一生を捧げたお年よりのための老人福祉は、費用よりも人間尊厳に重心を置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老人の経験と壮年の活力、そして青年の覇気が一つになった老・壮・青の三位一体こそ真の福祉社会の姿であるでしょう。

なにとぞ、今日の意義深い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韓日両国の友好協力と老人福祉増進のための立派な案がたくさん創出されることを望みます。

第2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もう一度心よりお祝いしすべての皆さまに大きな祝福と幸せがありますようお祈りします。

축 사



김 득린
한국 사회복지협회의
회장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 여러분!

재단법이 유니벨재단과 제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가 공동으로 ‘고령자복지시설에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위치와 역할’을 주제로 제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해오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몸을 낳고 내 몸을 기르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은 인간생활의 으뜸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근대화가 고도로 발전단계에 들어선 19세기 중엽부터 세계 각국은 이른바 ‘인구혁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지 오래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노인부양비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이제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문제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문제이며, 고령사회 대책은 국가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지형학적인 여건과 사회문화적 전통이 유사한 한·일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인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복지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복지 5 개년 계획(2004~2008 년)’ 을 심의하면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노인복지부문의 우선순위와 정부예산을 크게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초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를 발족하고 2007 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각종 노인보건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는 비용보다 인간존엄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장년의 활력 및 청년의 패기가 어우러진 노·장·청 삼위일체야 말로 진정한 복지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제 2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